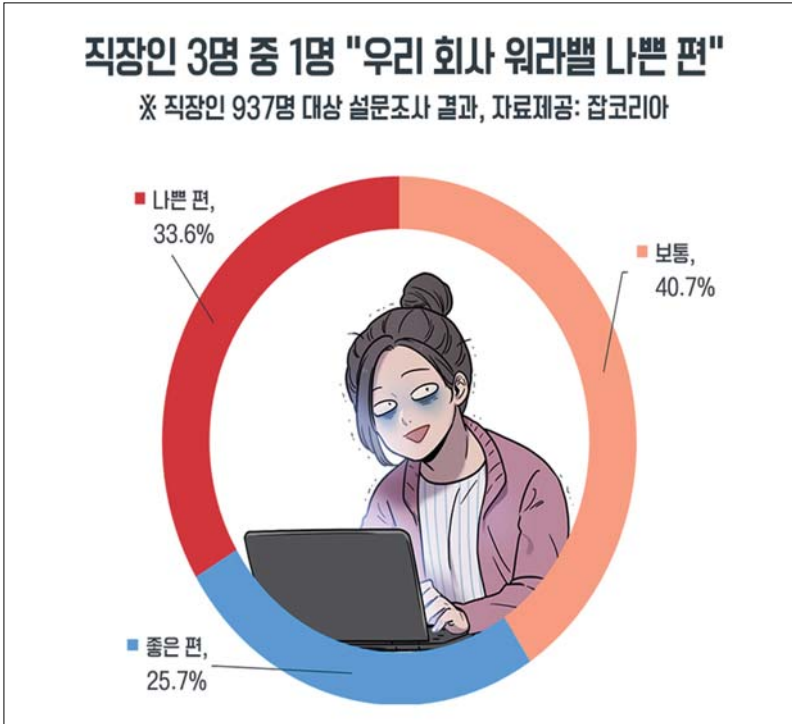


직장인 3명 중 1명 “우리 회사 ‘워라벨’ 나쁜 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줄임말...현대인들에 좋은 직장 조건
워라벨 좋을수록 회사 만족도 ↑...연봉 낮아도 이직할 것 58.3%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는 최근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재직중인 회사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정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33.6%가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워라벨 정도가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24.0%, '매우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9.6%로 나타났다. 반면 '좋은 편(21.1%)' 또는 '매우 좋은 편(4.0%)'은 25.7%로 워라벨 정도가 나쁘다는 답변보다 7.9%p 낮게 나타났다.

워라벨 수준이 좋을수록 직장인들의 회사 만족도 또한 높았다. 실제로 회사 워라벨이 좋은 편(매우 좋은 편+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 회사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그룹에서는 회사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8.3%로 유일하게 10%대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워라벨이 나쁜 편(매우 나쁜 편+나쁜 편)이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회사에 불만족한다'(70.8%)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워라벨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직장인 3명 중 1명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워라벨 수준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은 워라벨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벨은 신조어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숨 쉴 시간도 모자란' 현대인들에게 워라벨은 좋은 직장 조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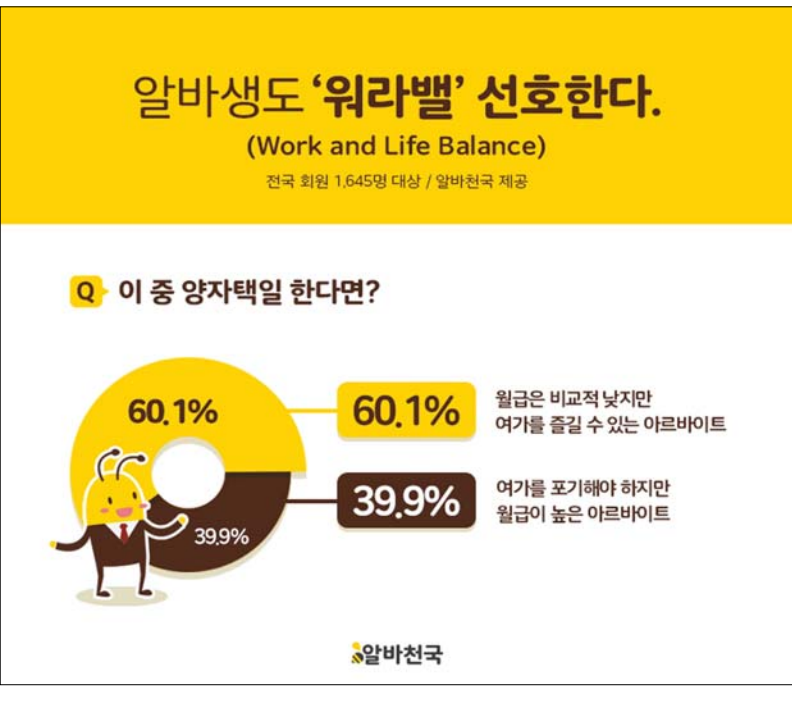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직장인 58.3%로 나타났다.

한편 과반수의 직장인들이 향후 워라벨 문화 확산을 예측했다. '워라벨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묻는 질문에 직장인 52.8%가 '확산될 것'이라 답했다. 현재와 비슷한 것이라 답한 것은 28.5%였고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것은 18.7%로 가장 적었다.

워라벨 문화 확산을 예측한 직장인들이 꼽은 이유 1위에는 '이미 공공기관, 유통 대기업 등 중심으로 워라벨 보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가 올랐다. 이어 '회사생활을 하는 워라벨 세대(1988~1994년생)가 증가하고 있어서(30.5%)', '눈치보지 않는, 초과근무 등이 사라질 것 같아서(29.1%)', '장시간 근무보다 성과를 중요시하는 등

기업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어서(28.7%)' 등 순이다.

반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부 대기업, 대기업 등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서(48.0%)', '눈치보지 않는, 초과근무 등이 사라질 것 같아서(47.4%)', '업무가 너무 많아서(업무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서(35.4%)) 등이 있었다.



알바생도 워라벨...10명중 6명 “월급 낮아도 여가 보장을”

삶의 질 중시 분위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영향

알바천국 10명 중 6명은 높은 월급보다 여가가 보장되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분위기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구인·구직 알바천국(대표 최인영)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회원 1,645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이 말하는 워라벨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1%는 "월급은 비교적 낮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가를 포기해야 하지만 월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9.9%였다.

가장 이상적인 워라벨 비율은 "일과 여가 50 : 50 (44.2%)"이었으며 "일과 여가 70 : 30 (40.4%)", "일과 여가 30 : 70 (15.4%)"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워라벨을 실천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실제 하루 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498명 가운데 32.9%만 워라벨을 "실천 중"이라 답했으며, "실천하지 못함"이라 답한 응답자는 67.1%에 달했다.

워라벨 실천 방법으로는 "정시 퇴근 후 취미활동(38.1%)과 "정시 퇴근을 위해 근무시간에 집중(21.3%)" 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알바 근무 중 받는 스트레스를 그때 그때 푼다(18.3%)", "여유로운 삶을 위해 알바 근무시간을 줄였다(10.4%)",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신청한다(7.1%)", "알바 퇴근 후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보지 않는다(4.5%)", "무응답(0.3%)" 등이 있었다.

반면 워라벨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유를 즐기면 삶이 너무 팍팍해서(45.5%)",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29.3%)"라는 답변을 꼽았다.

다음으로 "실천한다고 해도 잘 지켜질 것 같지 않아서(9.6%)", "워라벨에 관심이 없어서(9.6%)", "기타 및 무응답(8%)" 순이었다.

뉴스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